

안 좋은 것은 오래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열 번 외우기.  
장난같이 들릴 수 있는 이 주문이 정말로 나를 웃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 성전스님 -

## 송담로봇수술센터, 다빈치 로봇수술 시행 건수 1000례 달성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28일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하고, 3월 18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해원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 윤상호 로봇수술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로봇수술센터는 2021년 개소 이후 비뇨의학과를 시작으로 산부인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 5개 진료과 협진 체계를 통해 수술 건수를 확대해 왔다. 윤상호 센터장은 “1,000례 달성은 병원의 로봇수술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백용해 병원장은 “향후 수술 건수를 확대하고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해 로봇수술 선도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원 의료원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첨단 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로봇수술센터를 핵심 진료 분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 소아바른성장센터 개소, 성장·체형 통합 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9일 ‘소아바른성장센터’를 개소하고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체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저신장·성장지연·성조숙증 등 성장 이상과 척추측만증·OX자 다리·평발·거북목 등 체형 문제를 소아내분비, 재활의학, 정형외과가 연계한 다학제 진료 체계로 통합 관리한다.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체계측부터 골연령 촬영, X-ray, 자세·보행 평가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백용해 병원장은 “아이가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해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임직원 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12일 병원 본관 4층 제1회의실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임직원이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회 제도 안내 및 상담 지원 ▶문화 행사·강연 등 복지 프로그램 협력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운영 협조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백용해 병원장, 이정훈 진료부원장, 정혁수 사무국장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오평연 회원사업이사, 김성운 수도권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환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병원에 휠체어 10대를 기증했다.



## 간호부, ‘2026년 상반기 승급자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지난 3월 11일 ‘2026년 상반기 승급자 간담회’를 총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호부 소속 간호사를 비롯해 건진운영팀, 보험심사팀, 진료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의 간호 인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경험과 승급 소감을 공유하며, 2026년 목표와 포부를 밝혔다.

박완임 간호부장은 축사에서 “승급이라는 결실을 본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부서 간의 벽을 낮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한 간호사는 “승급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며, “평소 접하기 힘든 타 부서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간호부는 앞으로도 직무 만족도 향상과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네 살 천진불의 서원, ‘땅 한 평의 원력’ 동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18일 병원 내 기부자 라운지에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네 살 어린이 불자 엄윤경 양과 윤선원 보살이 각각 1평씩 총 216만 원을 보시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어린이 불자의 천진한 발원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엄윤경 양은 법산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불자 가정에서 자라며 보시의 뜻을 이어오고 있다. 부모는 2020년 아들 엄윤진의 이름으로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딸 윤경 양의 이름으로 공덕을 회향하며 나눔의 정신을 몸소 전하고 있다. 윤선원 보살도 같은 인연으로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금은 병원 신관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활용되며, 자비의로 실현과 병원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